

제지업계 온라인거래 1조원 돌파할 듯

지난 4월말까지 제지업계 전자거래 사이트인페이퍼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거래된 금액이 총 2679억원에 달해 올해 거래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금액인 2358억원에 비해 13% 늘어난 것으로 전자문서를 통해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적극적 보증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제지업체와 유통업체를 합쳐 129개사에 불과했던 전자거래 사이트 회원수는 4월말 현재, 410개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제지업계 전자거래 사이트는 주문에서 결제까지 모든 유통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 장터로 산업자원부의 기업간거래(B2B)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에 따라 구축됐다.

무림제지, 창립 50주년 페스티벌 개최

무림제지는 지난 5월13일 오전 11시부터 대구시 대구체육관에서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무림한마음페스티벌'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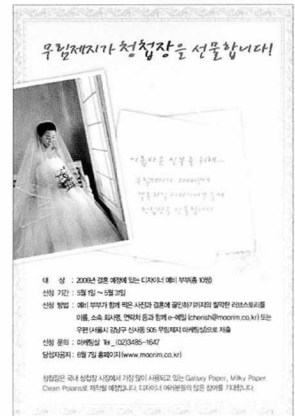
이날 행사와 관련 무림제지 측은 "50년 전 무림제지가 태동한 대구에서 무림제지와 신무림제지는 물론 신동에너지, 오피스웨이, 무림물류, 무림캠텍 등 관계사 임직원을 포함한 1200명이 다 함께 모인 가운데 열려 이날 행사의 의미가 남달랐다"고 전했다.

이동욱 회장은 이날 축사에서 "지난 50년을 자축하는 자리인 동시에 신나고 즐겁고, 경쟁보다는 화합을 우선하는 하나 된 자리, 새로운 무림의 발전에 초석이 되는 자리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오후 7시가 넘어 종료된 이날 행사에 참여한 1200여 임직원들은 무림의 새로운 50년의 비전을 공유하는 행사취지가 제대로 전달된 뜻 깊은 행사였으며 앞으로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는 수많은 사업장의 무림인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행사가 자주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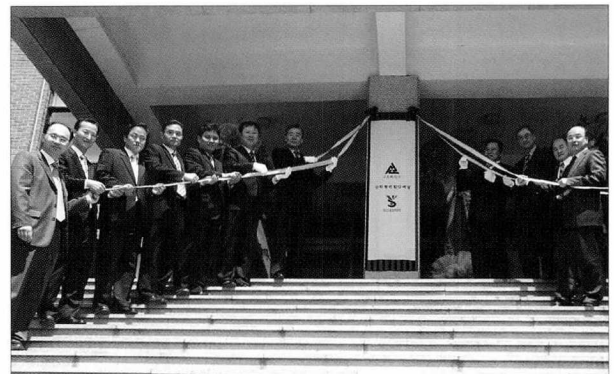
무림제지, 디자이너 10쌍 청첩장 무료 제공

고부가가치 팬시지 전문기업인 무림제지가 올해 결혼할 예정인 디자이너 예비부부들의 청첩장을 대신 제작해주시기로 해 화제다. 무림제지는 자사 제품인 갤럭시지(Galaxy Paper), 밀키지(Milky Paper), 클린 폴라리스지(Clean Polaris)가 국내 청첩장 시장에서 가장 애용되는 지종인 만큼, 결혼성수기에 접어드는 5월부터 한달간 이벤트를 통해 올해 결혼예정인 10쌍의 디자이너 예비부부들을 뽑아 청첩장 일체를 제작해주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무림제지는 디자이너들이 즐겨보는 디자인 월간지에 이벤트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5월초부터는 자사 홈페이지(www.moorim.co.kr)에 공지를 띄우고 대상자를 모집했다. 총 10쌍의 예비부부는 오는 6월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선정된 예비부부들은 직접 자신이 디자인한 청첩장 내지와 이미지로 자신만의 청첩장을 꾸밀 수 있으며, 바른손, 예그린 등 무림제지 팬시지로 카드를 제작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청첩장 전문회사에 제작대행을 맡겨 제품 품질도 안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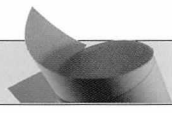
신호제지, 용인송담대학에 산학센터 설립



신호제지(대표 김중곤, 최우식)는 지난 5월2일 연구개발 기능을 활성화하고 제지분야 전문기술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용인송담대학(학장 김동익)과 산·학협동 협약을 체결하고 산학협동센터를 설립했다.

산·학 상호간의 협동 체제를 확립하여 산업, 행정 및 연구개발에 관한 협의를 근간으로 하는 이번 협정 체결은 현장실습, 연수, 위탁교육, 연구 및 취업에 대한 사업, 교재개발 등을 내용으로 한다.

신호제지는 산학협동센터 설립을 바탕으로 연구와 기술지도 사업을 추진하여 최적의 인적자원을 현장에 공급하고, 친환경제품과 각종 기능지에 대한 고객의 요구에 신속히 부응할 계획이다. 특히 산학협동센터가 특수지를 생산하는 신호제지의 평택공장과 근접한 입지조건을 감안할 때 신기술의 현장적용이 보다 유리해질 전망이다. 또한 산학협동센터 설립으로 신탄진에 위치한 중앙연구소는 인쇄용지 관련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는 전문기부로 연구개발 기능이 확대, 전문화되고 산학협동센터는 친환경제품과 기능지 연구를 담당하게 된다. 최



우신 신호제지 대표는 산학협동 체결식에서 “연구개발 분야를 지원하여 회사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산학협동센터 설립을 비롯한 각종 산학협력 사업을 통해 국내 경제 발전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남한제지, HIGH-FIVE 운동 전개

남한제지(주) 신탄진 공장은 지난 4월부터 무재해 달성의지를 담은 범 안전운동 캠페인인 HIGH-FIVE(5대 안전작업)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한제지는 이를 위해 5대 안전작업을 선정하고, 전 사업장에 이와 관련한 현수막을 설치했다. 또한 5대 안전작업으로 선정된 적재 안전작업, 크레인 안전작업, 구동체 안전작업, 정리정돈 등에 대해서 전사원을 대상으로 안전작업법 안전대책 수립 및 지침서 교육을 실시했으며, 현장 위험 요소지역에 표지판 50개소를 설치하고, 사고위험요소 중점관리 대책을 수립 하는 등 본격적인 안전관리에 들어갔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후처리 설비 공사로 인한 어수선한 분위기속에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시작된 것으로, 앞으로 정기적으로 추진성과를 분석, 평가해 연말에 우수부서를 포상할 계획이다.

남한제지 조치원공장, 독거노인돕기 성금 전달



지난 4월20일 남한제지(주) 조치원공장의 여직원 모임인 ‘송악회’ (회장 이상미)는 독거노인을 공장으로 초청, 독거노인 돕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성금은 ‘송악회’에서 초코렛을 판매한 수익금을 전달한 것으로 이상미 회장은 “작은 도움이지만 지역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계기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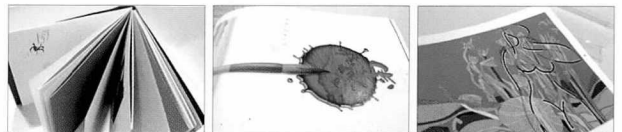
남한제지, 후처리 시설에 172억 투자한다

남한제지 신탄진공장은 지난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1년간 기존 건

물의 증·개축을 통해 후처리동을 확보하고 Double Cutter 1대, 자동 포장기 1대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 후처리 설비의 공정개선 등에 17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찬우 홍보 차장은 “이번 투자의 목적은 재단능력의 부족과 기존 Cutter의 저효율성을 개선하고 재단품의 효율향상과 품질향상을 증진함으로써 불량 및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며 “신규투자가 완료되면, 무선별율 향상에 따른 제품물 향상과 성력화, 공정개선에 따른 효율화 등으로 앞으로 연간 30억원의 손익개선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삼원페이퍼갤러리, 세계 디자인 인쇄물 전시



전세계의 독특한 디자인 인쇄물을 전시하는 ‘What’s Up Curious? Curious Collection Design Print Show’가 5월18일부터 오는 7월1일까지 삼원페이퍼갤러리에서 열린다.

전시되는 디자인 인쇄물은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전세계에서 수집된 창의력이 돋보이는 작품들로 디자인 작품집, 브로슈어, 카탈로그, 캘린더, 카드, 패키지 등 150여 점이다. 전시물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의 디자인과 여러 가지 특수인쇄 기법이 적용됐으며 종이부터 뒀가 다르다. 금속처럼 반짝이는 종이, 빛에 따라 색이 변하는 종이, 벨벳 같은 촉감의 종이, 화려한 색깔의 트레이싱지 등 독특한 성질을 지닌 고급 디자인용지의 세계적인 브랜드 큐리어스 컬렉션(Curious Collection) 종이들로, 직접 만져보고 빛에 비춰보고 싶은 호기심을 유발한다. 전시와 관련해 삼원페이퍼갤러리 측은 “새롭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찾아 여러 곳을 다니거나 해외를 가지 않고도 한자리에서 다양한 디자인 인쇄물들을 만나 볼 수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며 “평범함을 거부하고 남과 다른 차별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이번 전시에서 목마르던 호기심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펄프종이공학회 새회장에 원종명 교수

강원대 제지공학과 원종명교수가 최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에서 열린 (사)한국펄프종이공학회 정기총회및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원 신임회장은 이 학회의 총무이사, 편집위원장, 행사위원장 및 부회장을 역임했다.